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김혜림(Hyerim Kim)**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장애리(Aili Chang)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려영(Liying Jiang)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Hyerim Kim et al. (2016), An analytical study on cultural terms Korean-Chinese 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solution: *To date, the cultural terms has been translated without an agreed standards, and as results there has emerged certain translation issues, such as various translation terms in different public sectors which are actually the same words in original languag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atic phenomena in public sector's works in translating the cultural terms. The second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ranslation solutions to address the problems identified. For achieving these goal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rveyed total of nine websites from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extracted cultural terms and its translations as a database. And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base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ways and classified as well as proposed an appropriate translation solutions.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Keywords : cultural terms, public sector translation, Korean-Chinese translation, translation solution, website

1. 서론

문화 간 경계를 허물어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번역은 필수 불가결하다. 문화 간 교류를 위해서는 번역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데 그간 한국 문화용어¹⁾

* 본 연구는 2014년 국립국어원의 발주로 진행되었음.

** 김혜림은 본 연구의 주저자임.

1) 본고에서 문화용어는 한국 문화 관련 용어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외에 외래문화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고 뿌리내린 문화(예: 중국에서 유래한 약기인 편종 등)관련 용어 역시 문화용어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본고에서 ‘한국어 문화용어’는

번역은 통일된 기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같은 용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번역어가 혼재하는 등 번역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놀이를 외국어로 각기 다르게 번역,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에 내포된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문화는 번역을 통해 해외에 소개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번역의 질과 완성도는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문화용어에 대한 번역 실태를 파악하는데 1차 연구목적을 두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번역 방안을 제시한다는데 최종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누리집²⁾을 대상으로 문화용어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중국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 용어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2차 용어 도출 과정을 거쳐 849개의 중국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이들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번역 실태 조사 작업에서는 문화용어와 그 용어에 대응하는 번역어를 데이터로 구축한 후, 데이터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여 기관 간 번역의 통일여부를 파악하고 번역 방안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용어 번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언어 특성에 입각한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문화용어 추출

2.1. 텍스트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모두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원문 텍스트 자료를 수집했다(총 1,431,461자³⁾).

한자어 용어와 순우리말 용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2) 개인이나 단체가 월드 와이드 웹에서 볼 수 있게 만든 하이퍼텍스트로 웹사이트와 비슷한 말이다.
- 3) 국립국어원의 <문화용어 번역실태 조사 및 번역방안 연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문화용어 추출 과정에서 1차로 영어 대역어가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확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가 최대한 일치하는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적은 곳도 있어 그러한 기관에 한해서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 간 양적 편차가 심한 요약 번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데이터 수집 범위에 포함시켰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된 콘텐츠라 하더라도 문화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기관 소개와 같은 경우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소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존재하였으나 원문 텍스트와 내용 구성이 크게 상이하였다. 그러나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어 구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어(키워드)는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원문 텍스트 수집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문 텍스트가 존재하였으나 그에 대한 원문 한글 텍스트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원문 텍스트를 제공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된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아 기관 간 양적 균형을 고려해 기간지인 <Koreana>의 지난 10년간 특집기사만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원문 텍스트의 경우 용어 추출을 위한 정량적 분석 척도(<표 3-1> 참조) 중 하나인 ‘분포도’, 즉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뭉치 툴인 워드스미스(WordSmith)로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동일 기관의 텍스트 자료는 단일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반면 번역문 텍스트의 경우는 전체적인 작업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번역문을 찾아갈 수 있는 URL을 원문 텍스트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2.2. 문화용어 추출

2.2.1. 후보군 추출

2.2.1.1. 1차 용어 추출(정량적 기준)

영어 기준 최종 300개 문화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2~3배 정도의 용어 후보군을 다음 3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추출하기로 하였다.

표 1. 후보군 추출을 위한 정량 분석 척도

빈도수 (F: frequency)	모든 용어의 총 출현 빈도에서 차지하는 특정 용어의 빈도 비율 척도
분포도(R: range)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목록 포함 여부 (L: list)	『우리문화 길라잡이』(2002, 학교재)에 포함된 용어 목록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립국어원 누리집 ‘한국 문화 기초 용어’ 목록(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culture.jsp)을 통합한 236개 용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척도

앞서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원문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워드스미스(WordSmith) 툴을 이용하여 용어별 빈도수(F) 및 분포도(R)를 구하기 전 단계로 한글 한자 자동 변환 프로그램(UTagger)을 사용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워드스미스에서는 기본형 처리(lemmatization)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 대한 변이형까지 동일 용어로 취급하여 빈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용어는 명사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태소 분석 결과물에서 조사 등의 기능어와 용언 등은 제외하고 명사류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압축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형태소 분석을 거친 기관별 파일 9개를 모두 워드스미스에서 불러와 전체 용어에 대한 빈도수(F) 및 분포도(R)를 구하고 그 결과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이 엑셀 파일(총 6,807개 용어)에 국립국어원 목록 포함 여부(L)를 나타내는 항목을 추가한 후, 세 항목(F, R, L)의 점수를 합산, 총점 기준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렬하였다.

그림 1. 정량적 기준에 의한 후보 용어 도출 화면

F2		fx =C2+D2+E2					
A	B	C	D	E	F	G	
용어	빈도	F Score	R Score	L Score	총점		
전	84	0.24231	70	90	160.24231		
배	21	0.06058	60	90	150.06058		
상	16	0.04615	50	90	140.04615		
점	57	0.16442	40	90	130.16442		
홍	33	0.09519	40	90	130.09519		
철자	10	0.02885	40	90	130.02885		
환식	6	0.01731	40	90	130.01731		
탈	5	0.01442	40	90	130.01442		
제사	41	0.11827	30	90	120.11827		
환글	40	0.11538	30	90	120.11538		
익	14	0.04038	30	90	120.04038		
백자	11	0.03173	30	90	120.03173		
동지	9	0.02596	30	90	120.02596		
북	9	0.02596	30	90	120.02596		
추석	8	0.02308	30	90	120.02308		
환옥	7	0.02019	30	90	120.02019		
대보름	6	0.01731	30	90	120.01731		
국악	5	0.01442	30	90	120.01442		
신주	5	0.01442	30	90	120.01442		
판소리	5	0.01442	30	90	120.01442		
거문고	4	0.01154	30	90	120.01154		
인삼	4	0.01154	30	90	120.01154		
병풍	3	0.00865	30	90	120.00865		
최	3	0.00865	30	90	120.00865		
김치	44	0.12692	20	90	110.12692		
서당	14	0.04038	20	90	110.04038		
단오	9	0.02596	20	90	110.02596		
가마	8	0.02308	20	90	110.02308		

상위 115개 용어는 모두 국립국어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화용어’로 바로 확정할 수 있었던 반면, 116위부터는 세 항목을 기준으로 한 정량적 분석틀이 유의미한 변별력을 갖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나머지 6,690여 개 용어에는 일반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후보군을 추출해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문화용어라 간주했던 용어들도 추출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 용어의 경우 한글 한자 자동변환 프로그램(UTagger)의 참조 말뭉치인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2.2.1.2. 2차 용어 추출(정성적 기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정량 분석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용어 후보군을 추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용어는 형태소 분석을 거치지 않은 원문 텍스트에서 정성 분석을 통해 추출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성 분석이라 함은 번역학, 인류학 분야 등의 기존 문헌 및 공공기관별 문화에 대한 정의를 취합해 잠정적으로 도출한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용어라고 대략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어를 추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형태소 분석을 거치지 않은 원문 텍스트를 워드스미스에 입력한 결과 총 33,744 개의 어휘 목록(WordList)이 생성되었다. 이는 물론 정량 분석을 통해 확정된 115개 용어를 포함한다. 이 어휘 목록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문화용어에 대한 잠정적 정의 및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후보 용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2.2.1.3. 3차 추가 용어 추출

정성 분석에 의한 2차 추출 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동 과정으로도 충분한 양의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영어 번역문만 존재하는 원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추가 후보 용어 확보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림 2. 워드스미스 어휘 목록(WordList) 도출 화면

N	Word	Freq	%	Texts	Lemmas	Set
137	가마니짜기	1	11.11	1		
138	가마를밧기	1	11.11	1		
139	가마를	1	11.11	1		
140	가마에	2	22.22	2		
141	가마타기	1	11.11	1		
142	가마	1	11.11	1		
143	가면	7	22.22	2		
144	가면과	1	11.11	1		
145	가면과도	1	11.11	1		
146	가면올빼미	1	11.11	1		
147	가면은	2	11.11	1		
148	가면틀	3	22.22	2		
149	가무를	1	11.11	1		
150	가무백희	1	11.11	1		
151	가무의	1	11.11	1		
152	가문	1	11.11	1		
153	가문에	1	11.11	1		
154	가문에서는	1	11.11	1		
155	가문의	4	22.22	2		

마지막으로 워드스미스에서 어휘 목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용어

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원문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며 문화용어라 볼 수 있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이들 용어도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2.2.2. 문화용어 최종 추출

다음으로 전술한 과정을 거쳐 확보한 후보 용어(중국어 849개)에 대한 번역 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 용어는 존재하나 그에 대한 대역어를 어느 한 기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본 연구에서 수집한 번역문 텍스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중국어는 592개로 압축되었다.

3. 문화용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문화용어 번역 실태 조사는 크게 통일성 조사와 번역 유형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통일성은 복수의 기관에서 번역어를 다르게 사용한 ‘혼재’와 동일하게 사용한 ‘통일’로 구분하였고, ‘혼재’는 다시 단일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와 다중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번역 유형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역 방안을 유형화하였다.

3.1. 문화용어 번역 통일성 조사 결과

추출된 문화용어 592개를 대상으로 중국어 번역 통일성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문화용어에 대해 복수 기관에서 각기 다른 번역 유형으로 혹은 동일한 번역 유형이지만 다르게 번역된 ‘혼재’가 포함되어, 실제 번역어의 총계는 문화용어의 대역어 총계인 592개보다 많은 656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재 양상을 보인 번역이 10.7%, 둘 이상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어 통일성을 보인 번역이 16.3%, 단일 기관에서만 번역된 비중이 7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통일성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복수 기관 번역	혼재	62 (10.7%)
	통일	94 (16.3%)
단일 기관 번역		422 (73.0%)
총계		578 ⁴⁾

(100%)

번역 통일성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혼재의 양상은 동일한 번역 유형에서 나타난 혼재와 다양한 번역 유형을 통해 번역되면서 나타난 혼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용어가 단일한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혼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 예를 들어 문화용어 ‘절’의 번역은 세 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의미역으로 번역되었으나 번역어는 각각 ‘叩拜’, ‘年拜’, ‘拜年’ 으로 상이하다. 이렇듯 의미역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각 기관의 번역어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고에서는 단일 유형 혼재라 칭한다. 후자의 경우 하나의 용어에 대해 기관별로 번역 유형이 상이한 경우로 문화용어 ‘온돌’이 기관에 따라 의역 ‘地暖(房)’과 한자역 ‘溫突’로 상이하게 번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혼재 양상을 다중 유형 혼재라 칭한다. 궁극적으로 본고에서 지칭하는 혼재는 단일과 다중 유형 혼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번역된 경우를 모두 혼재라 칭한다. 통일은 번역 유형을 막론하고 복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문화용어가 동일하게 번역된 것을 지칭하며 ‘한옥’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동일하게 ‘韓屋’로 번역되고, ‘장승’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민속촌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長丞’으로 번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일 기관 번역은 단 하나의 기관에서만 번역되어 하나의 번역어만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3.1.1. 혼재

표 3. 번역 혼재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세부 유형	문화용어 개수 (출발어 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 기준)
혼재	62 (10.7%)	단일 유형	29	의미역	31
				대응역	25
				혼역	4
				설명식 의미역	3
		다중 유형	33	음역	2
				의미역	22
				대응역	20
				한자어 한자역	16
				설명식 의미역	8
				음역	5
				혼역	3
				한자어 대응역	2
로마자 표기	1				

통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혼재 양상의 경우 의미역의 혼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역은 뜻을 살려 번역하는 번역 방법의 특성상 번역자의 주관

4) 본고의 번역 실태 분석 과정에서 번역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오역은 양적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태 분석 결과 총계인 578은 오역 14개를 제외한 개수이다.

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되어 혼재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징을 갖는다. 의미역 중에서도 특히 음식명의 혼재 비중이 높는데, 이는 전체 의미역에서 음식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적 결과가 혼재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외에, 순우리말과 한자어 음식명을 각각 의역⁵⁾ 및 한자역 등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표 문화권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번역이 시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장(越冬泡菜, 冬储泡菜, 腌制越冬辛奇)’, ‘젓갈(海鲜酱, 风味酱)’, ‘불고기(烤牛肉, 烤肉)’, ‘김치(泡菜, 辣白菜, 辛奇)’, ‘약과(蜜麻花, 药果)’ 등이 의미역에서 혼재 양상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김치와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음식명의 경우도 여전히 번역의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미역 다음으로 혼재 비중이 높은 것은 대응역이다. 앞서 의미역의 경우, 각 기관별 번역자가 용어의 의미를 각자 달리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혼재 양상이었다면, 대응역의 경우 동일한 용어의 대응어를 번역자마다 상이하게 생각하여 발생하는 대응어 간 불일치가 혼재 양상을 초래한 경우로 ‘독(石甌, 坛子)’, ‘모시(夏布, 苧麻)’, ‘웃고름(衣带, 飘带)’, ‘정월 대보름(元宵节, 正月十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용어의 의미를 설명식으로 풀어 전달한 설명식 의미역 유형의 경우도 혼재 양상이 뚜렷한데 이 역시 번역자가 주관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재 양상 중 용어에 대한 해석과 표현, 대응어의 선택 등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는 의역의 범주, 즉 의미역과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전체 혼재 양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용어의 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번역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역 다음으로 혼재 비중이 높은 번역 유형은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한자역이다. 한자역으로 번역된 대상은 모두 한자어인 문화용어로 단일 유형 혼재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중 유형에서만 혼재 양상이 나타났다. ‘훈민정음’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이 강한 한자어나 문화용어와 중국어 대응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중국어 간체로 그대로 전환하는 한자역의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혼재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반면 ‘잡채(杂菜)’, ‘가곡(歌曲)’과 같이 일부 한자어를 중국어 간체로 그대로 전환할 경우 도차어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번역이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자역 외에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번역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배경이 한자역의 다중 유형 혼재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혼역은 주로 2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된 복합어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단일과 다중

5) 본고에서 사용하는 ‘의역’은 의미역과 대응역 및 설명식 의미역을 합한 개념이다.

유형에서 균등한 양상을 보였다. ‘남사당놀이(男寺堂表演)’, ‘한산모시짜기(韓山夏布织造, 韩山苧麻编织)’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남사당놀이’와 같은 복합어가 하나의 문화용어 혹은 어휘로 사용되는 반면, 목표 문화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어가 없어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사당’과 ‘놀이’를 분리하고, ‘한산’, ‘모시’, ‘짜기’를 각각 분리하여 ‘한자어 한자역+의미역’,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⁶⁾ 등 다양한 번역 유형을 병합하는 혼역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혼역의 구성 요소 중 한자어 한자역의 경우 혼재 양상이 적으나, 위의 혼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대응역과 의미역이 달라지면서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화고인돌유적(江华支石墓遗址 한자어 한자역+대응어 / 江华的史前石墓遗址 설명식 의미역)’과 같이 복합어를 혼역과 함께 의미를 풀어 이해를 돕는 설명식 의미역으로 번역하면서 다중 유형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음역의 경우, 역시 번역어 총량 대비 혼재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다중 유형 혼재가 단일 유형보다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김치(辛奇)’, ‘판소리(盘索里, 盘瑟俚)’, ‘막걸리(马格利)’, ‘태권(跆拳道)’ 등의 음역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다른 번역 유형으로 의미의 전달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이 문화용어 번역이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 범위가 넓고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한 문화용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문화용어 번역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 부족으로 인해 이론적 타당성과 실무 경험이 결합된 일관된 번역 지침의 부재가 번역의 혼재 양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배경이라 분석된다.

3.1.2. 통일

표 4. 번역 통일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 기준)
통일	94 (16.3%)	한자어 한자역	60
		대응역	19
		한자어 대응역	7
		의미역	6
		음역	1
		혼역	1

통일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하나의 문화용어가 동일하게 번역된 경우를 뜻하는데, 통일성 분석 결과 한자어 한자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자어 한자역된 문화용어 중 통일된 번역 경향을 보인 용어는 대부분 ‘강릉단오제(江陵端

6) 혼역에 포함된 번역 유형은 전체 번역어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응역+한자어 한자역+의미역’의 대응역은 대응역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午祭), ‘훈민정음(訓民正音)’, ‘강녕전(康寧殿)’, ‘장승(長丞)’ 등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이 짙은 한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자어 대응역과 대응역에서 통일된 번역 경향을 보인 용어들은 각각 ‘인삼(人參)’, ‘산수화(山水畵)’, ‘사당(祠堂)’, ‘가마(轎子)’, ‘베틀(織布機)’, ‘죽(粥)’과 같이 한국과 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관련되며 주로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뿌리 내리고 통용되는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 대응역’과 ‘대응역’의 차이점을 보면 한자어 대응역의 유형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한자어인 반면, 대응역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순우리말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번역의 통일 양상에서는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한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말 한자어에 대한 한자역은 문화적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목표 문화권에서의 소통성이 담보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번역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역의 범주에 속하는 대응역과 의미역을 보면 대응역은 앞서 밝혔듯이 양국이 공유하며 현재의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문물 관련 용어들이 주를 이루며, 의미역은 통일된 6개의 번역어 중 4개가 ‘김치찌개(泡菜湯)’, ‘송편(松餅)’, ‘떡국(年糕湯)’ 등의 음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역의 특성상 혼재 가능성은 높지만 소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 일관된 번역 지침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번역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기존의 음식명 번역 혼재 양상을 현저히 줄이고 표준화된 번역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확보된 음식명 번역어를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목표문화권에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 혼재 가능성이 높은 의역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기능에 따라 번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음역의 경우, ‘아리랑(阿里郎)’이 유일하게 통일된 음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은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민요로 중국에 알려져 있는데, 본 사례를 통해 순우리말 용어의 중국어 음역어 정착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통일성 분석 결과 순우리말 용어의 중국어 음역어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중국어가 갖는 표의문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통해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내지는 음의겸역)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중국어 음역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 외에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총 14개의 오역이 발견되었다. 오역은 말 그대로 잘못된 번역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의미 오류 유형의 오역과 오자로 추정되는 글자 오류 유형의 번역을 오역에 포함하

7) 음의겸역: 원음에 가깝게 음역을 하되, 표의성이 가미된 글자들로 조합하여 언어문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김현주 2007: 483).

였다. 우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의미 오류의 사례로는 ‘간장(大醬)’, ‘한류 드라마(韩国历史剧)’, ‘대포집(烤肉一条街)’, ‘탈놀이(假面具)’, ‘구홀미(米)’, ‘권쥐 새끼놀이(抓小老鼠)’, ‘택견(跆拳道)’ 등이 있었다. 글자가 틀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역으로는 ‘광화문(光化门(○), 光华门(x))’, ‘외규장각(外奎章阁(○), 外奎藏阁(x))’, ‘영산재(灵山齋(○), 灵山祭(x))’ 등이 나타났다. 의미 오류의 경우 ‘간장’처럼 고착된 대응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발생한 경우, ‘탈놀이’, ‘구홀미’, ‘한류 드라마’와 같이 의미가 확장 또는 축소된 경우, ‘막국수(荞麦面)’, ‘약수(矿泉水)’와 같이 의미를 살려 번역하려 했으나 중국어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 오류들은 해당 문화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부족, 적절한 의역어나 대응어 등을 찾기 위한 노력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글자 오류의 경우 의미 오류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한자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혹은 번역자가 기존의 지식과 선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이 오역을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3.2. 문화용어 번역 유형

최종적으로 추출된 문화용어 592개를 대상으로 번역 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는 한자역, 의역, 혼역, 음역의 번역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번역 유형별 하위 번역 유형을 보면 한자역은 한자어 한자역, 한자어 대응역, 의역은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음역은 중국어 음역과 로마자 표기로 분류되었다. 각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번역 유형(대)	번역 유형(소)	개수 ⁸⁾	비중	
한자역	한자어 한자역	291	44.4%	47.1%
	한자어 대응역	18	2.7%	
의역	의미역	130	19.8%	38.7%
	대응역	109	16.6%	
	설명식 의미역	15	2.3%	
혼역		82	12.5%	12.5%
음역	중국어 음역	10	1.5%	1.7%
	로마자 표기	1	0.2%	
합계		656	100%	100%

(도착어 기준)

8) 문화용어의 실제 번역된 유형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번역 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은 문화용어(출발어)가 아닌 실제 번역어(도착어)기준으로 진행하였다.

한자역은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번역 유형으로서 한자어 한자역은 첫째,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한 경우(예: 가가례 家家禮, 강녕전 康寧殿), 둘째, 순우리말 용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용어의 한자로 번역한 경우(예: 거문고 玄琴), 셋째, 순우리말 용어의 한자 이칭으로 번역한 경우(예: 장끼타령 雄雉歌)를 지칭한다. 한자어 대응역은 한자어 용어의 의미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인삼(人參)’, ‘풍수(風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의역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유형의 통칭으로 의역의 형태 및 방식에 따라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의 하위 번역 유형으로 나뉜다. 의미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의 의미를 간결하게 살리는 데 중점을 둔 번역 유형으로 ‘가래떡’을 ‘长条糕’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응역은 한국어 문화용어가 중국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전제하는 대응어로 번역된 경우를 지칭하며 ‘가마’를 ‘轿子’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씨름’을 레슬링을 뜻하는 ‘摔跤’로 번역한 것과 같이 간혹 목표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되었으나, 본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는 번역도 눈에 띈다. 설명식 의미역은 문화용어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를 지칭하며 ‘김치냉장고’를 ‘盛放辛奇的冰箱’으로 풀어 설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혼역은 특정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 구성요소별로 번역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여러 번역 유형이 한 용어 안에 드러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수리취떡(山牛蒡叶饼)’의 경우 ‘수리취’는 대응역, ‘떡’은 의미역한 것으로서 혼역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음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강조하는 번역 유형으로 중국어 음역과 로마자 표기로 나뉜다. 중국어 음역은 문화용어의 원음을 중국어로 나타내는 경우를 지칭하며 ‘아리랑’을 ‘阿里郎’으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를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경우로 ‘너비아니’를 ‘neobiani’로 번역한 경우를 지칭한다.

표 6.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번역 유형		개념	예시
한 자 역	한자어 한자역	한자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한 경우 순우리말 용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용어의 한자로 번역한 경우 순우리말 용어의 한자 이칭으로 번역한 경우	1. 가가례 家家禮 2. 거문고 玄琴 3. 장끼타령 雄雉歌
	한자어 대응역	한자어 용어의 의미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와 완전 히 일치하는 경우	인삼 人參
의	의미역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경우	가래떡 长条糕

역	대응역	해당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중국어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가마 轿子
	설명식 의미역	해당 용어의 의미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	김치 냉장고 盛放幸奇的冰箱
혼역		하나의 용어가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되어 결합된 경우	수리취떡 山牛蒡叶饼 (대응역+의미역)
음역	중국어음역	해당 용어의 원음을 중국어로 나타내는 경우	아리랑 阿里郎
	로마자 표기	해당 용어를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	너비아니 neobiani

3.3. 번역 유형별 분석

3.3.1. 한자역

3.3.1.1. 한자어 한자역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한자어 한자역이 44.4%로 번역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번역어의 통일 양상에서도 한자어 한자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자어 한자역은 현재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번역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번역어의 통일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의미의 전달성과 소통성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번역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한자어 한자역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용어가 총 망라되어 있으나 그 중 유형문화재(예: 불국사 佛国寺, 조선왕조실록 朝鲜王朝实录), 예술·음악(예: 농악 农乐), 의례(예: 음복례 饮福礼), 제도(예: 관아 官衙), 건축(예: 단청 丹青, 영제교 永济桥), 역사/기록(예: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实录地理志)의 분류에 속하는 문화용어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화용어 분류의 특성상 한자어 한자역이 되는 문화용어는 주로 현재보다는 과거의 문물을 나타내며, 순우리말보다는 한자어 문화용어가 주로 한자역의 방식을 통해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으로 과거의 문물, 특히 제도권에 속하여 문헌 등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보존되는 문물이 대부분 한자어로 통용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유형문화재, 역사 기록물, 제도 등 과거의 제도권 문화에 속하며 한자어로 표기된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하는 방식의 한자역은 문화의 고유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도 일정한 소통성을 보장하는 번역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한자역의 혼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번역 유형이 모든 한자어 문화용어 번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대 생활에서도

자주 통용되는 ‘고사’나 ‘가곡’, ‘신주’를 그대로 ‘告祀’와 ‘歌曲’, ‘神主’로 한자역한다면 의미 전달과 소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용어들은 한자역뿐 아니라 의미역과 대응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되어 혼재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유형문화재, 의례, 유물 관련 한자어 용어와 같이 과거의 문물을 지칭하며 한자어 자체에 문화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함축되어 있어 의미의 전달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최대한 한자역하여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고사’와 ‘온돌’, ‘가곡’처럼 현대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한자역할 경우 의미 왜곡과 소통 불가의 위험성이 있다면 현대어 맥락에서의 소통 가능성, 목표 언어권에서의 기능성,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왜곡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역 등을 통해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통해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또는 음의검역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3.3.1.2. 한자어 대응역

한자어 대응역은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했을 때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자어 대응역은 한국과 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관련된 용어가 주를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두부(豆腐)’, ‘상례(喪禮)’, ‘인삼(人參)’, ‘탕(湯)’, ‘풍수(風水)’, ‘보살(菩薩)’, ‘산수화(山水畵)’ 등이 있다. 우리말 한자를 그대로 중국어 간체로 전환하여 번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할 여지가 적고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소통과 수용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한자어 대응역 방식으로 번역된 유형이 전체 번역어 비중에서 2.7%임을 감안할 때 한자어 대응역의 적용은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권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문화용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3.3.2. 의역

3.3.2.1. 의미역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미역이다. 의미역 역시 다양한 분야의 문화용어가 총 망라되어 있으나 그 중 음식명이 3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김혜림(2012: 64)에 따르면 음식명에 대한 의미역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어가 표의문자 체계를 갖고 있어 외래어의 음운 표기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음식명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수용성이 번역 전략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음식명은 기본적으로 순우리말(예: 가래떡)과 한자(예: 약과) 음식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우리말 음식명(표음문자)을 중국어(표의문자)로 음운 표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사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음운 표기를 한다 해도, 해당 한자가 갖는 고유한 의미가 음식명의 문화적 함의를 훼손할 수 있다(김혜림 2012: 64). 또한 ‘잡채’와 같이 한자로 된 음식명을 그

대로 한자역할 경우 목표문화권에서의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태 분석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음식명의 의미역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명 외에 세시풍속 및 전통놀이(예: 가마등받기 抬轿子), 무형문화재(예: 줄광대 走绳艺人, 살풀이춤 驱煞舞), 생활 도구 및 풍습(예: 이불호청 白被单), 사회(예: 새마을 운동 新村运动), 예술(예: 달항아리 月缸), 주거(예: 이엉 잇기 搭建茅草屋顶), 생활 의례(예: 홍동백서 东红西白)와 관련된 문화용어가 의미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합해 보면 의미역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 중 주로 음식, 주거, 생활, 풍속, 놀이, 예술, 사회 관련 용어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 용어는 앞서 주로 한자역된 의례, 제도, 역사 기록물, 유형문화재 등 관련 용어와는 달리 순우리말 용어가 많아 중국어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살리는 번역 방식인 의미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의미역에서 순우리말 용어 비중이 높은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전체 의미역 중 60% 이상이 순우리말 용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한자어 용어를 그대로 한자역 했을 때 소통이 어렵거나, 의미 왜곡이 초래될 수 있는 한자어(예: 강정 姜釘→米条, 문중 門中→家族)가 주로 의미역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역의 특징은 높은 혼재 비중으로 이어진다. 순우리말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주관적 해석과 표현이 상이하여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특히나 ‘세배’와 ‘절’ 등 한국 고유의 생활 및 풍습과 관련된 용어일 경우 마땅한 대응어가 없어 기관별로 혹은 텍스트 문맥에 따라 각각 ‘叩拜’, ‘拜年’과 ‘交拜’, ‘行礼’, ‘跪拜’ 등 다양한 번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의미역의 경우 본 실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할 경우 번역자의 주관적 의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표현도 다양하여 번역 혼재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소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미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식명의 경우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문화의 고유성과 의미의 소통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향후 다른 문화용어 분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3.3.2.2. 대응역

실태 분석 결과 대응역의 방식으로 번역된 문화용어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를 막론하고 한중 양국 모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공유하는 문물과 풍습 관련 용어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扇子)’, ‘밥(米饭)’, ‘돌(周岁)’, ‘떡(年糕)’, ‘수저(筷勺)’, ‘팽이치기(抽陀螺)’, ‘북(鼓)’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며 중국과 많은 문화와 문물을 공유하였다. 앞서 제시한 번역 사례들이 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풍습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승된 문

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착화되면서 각국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고 새롭게 파생적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문화적 갈등을 빚기도 한 강릉단오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화권을 전제한 대응역은 문화적 함의를 일부만 전달하거나,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번 실태 분석에서 연구진은 대응역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의미의 불일치가 의심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갓’을 모양과 재질이 전혀 다른 ‘斗笠’로 번역하여 명백하게 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 외에도,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특정 문화용어의 대응어로 사용하였지만 의미의 일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씨름’을 ‘摔跤’라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摔跤’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레슬링과 프로레슬링으로 통용되는데, 씨름은 한국 고유의 운동 경기로 레슬링과는 구별된다. 또한 본 실태 분석에서 ‘대보름’,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을 각각 ‘正月十五, 元宵节’, ‘春节’, ‘中秋’ 등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대응역이 해당 명절 고유의 문화적 함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혹은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할 경우, 한국 명절 고유의 특성은 사라지고 중국의 독자로 하여금 자국의 해당 명절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응역의 경우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의미의 일치성, 전달의 효과성, 문화적 함의의 충실성 여부 등을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음역 혹은 음의겸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보름’을 중국의 ‘正月十五’, ‘元宵节’ 등의 대응어로 번역할 경우,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보름 중 ‘보름’은 우리말 한자어에서 만월을 지칭하는 ‘望’으로 한자역 겸 의미역하고 ‘대’는 ‘大(큰 대)’로 한자역 겸 음역하여 ‘大望日’로 번역하는 것이 음의겸역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3.2.3. 설명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의 의미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로 주로 ‘겉절이(用盐腌制的小萝卜和白菜等)’, ‘김치냉장고(盛放辛奇的冰箱)’, ‘창포물머리감기(用菖蒲水洗头)’, ‘신명(热情和兴致)’ 등 한국 고유의 식문화와 정서, 풍습 관련 용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다. 설명식 의미역은 기본적으로 번역어라기 보다는 설명에 가까우며, 주로 중국어 문화권에 생경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의미 혹은 문물 관련 용어를 번역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어 옆에 괄호를 붙여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을 덧붙이곤 한다. 그러나 본 실태 분석에서는 괄호 안 설명이 아닌 번역어로서의 풀어쓰기, 즉 설명식 의미역이 발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명식 의미역은 하나의 번역어로 성립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미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번역의 방법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식 의미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임시적 보조 장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어휘 차원의 번역이

필요하다.

3.3.3. 혼역

2개 이상의 번역 유형이 결합된 형태의 혼역은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 ‘한자어 한자역+음역+의미역’ 등 결합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혼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결합된 특징을 갖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혼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의 번역어이다. ‘무주만딴불축제(茂朱螢火庆典,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 ‘영취산진달래축제(灵鷲山金达莱庆典, 한자어 한자역+음역+의미역)’, ‘광안리어방축제(广安里渔坊节, 한자어 한자역+의미역)’, ‘울산고래축제(蔚山鲸鱼节,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축제는 해당 지역명을 한자역하고 축제의 주제와 대상을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며, ‘축제’를 ‘庆典’과 ‘节’ 둘 중의 하나로 의미역하는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지역명을 한자역하고, 축제의 주제와 대상을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축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庆典’과 ‘节’ 둘 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문화용어 번역의 표준화를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庆典’은 축하를 목적으로 벌이는 행사, 즉 경축행사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축제는 축하하는 의미보다는 특정 주제로 벌이는 잔치와 문화 행사 등을 의미하는바, ‘渔坊节’, ‘鲸鱼节’와 같이 ‘~节’로 축제의 번역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역에서 지역 축제 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놀이와 무형문화재로, 각각 ‘왓자놀이(臼字游戏, 한자어 한자역+대응역)’, ‘지신밟기(踩地神, 대응역+한자어 한자역)’, ‘웃놀이(尤茨游戏, 음역+대응역, 擲柶游戏, 의미역+대응역)’와 ‘어방놀이(渔坊戏, 한자어 한자역+의미역)’, ‘좌수영어방놀이(左水营渔坊戏, 한자어 한자역+대응역)’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놀이와 무형문화재 역시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를 갖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앞서 지역 축제의 후부요소인 ‘~축제’에 대해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유사한 후부요소인 ‘~놀이’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일반적인 전통놀이에서의 ‘놀이’는 ‘游戏’를 번역어로 사용하였으나, 연희와 공연의 성격을 갖는 ‘놀이’는 ‘戏’로 번역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후부요소가 ‘놀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놀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일정한 기준으로 확립하여 번역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4. 음역

3.3.4.1. 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의 방식으로 번역된 번역어 개수는 총 10개로 전체 번역어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통일된 음역어는 ‘아리랑(阿里郎)’이 유일하며, 단일 기관에서 음역된 용어는 ‘에버랜드(爱宝乐园)’, ‘생막걸리(生马格利酒)’이고, 혼재 양상을 보

인 음역 사례는 ‘강강술래(羌羌水越來, 羌羌水月來, 江江水月來)’, ‘김치(辣白菜, 泡菜, 辛奇)’, ‘막걸리(米酒, 馬格利)’, ‘판소리(盤索里, 盤瑟俚, 傳統歌曲)’, ‘판[뿔판(跳吧, 韩语发音Ttwilpan)’, ‘놀판(玩吧, 韩语发音 Nolpan)’, ‘살판(生活吧, 韩语发音Salpan)’, ‘판이란(“PAN”是指-)’], ‘택견(跆拳道, 跆拳道)’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리랑’은 오랜 시간 한국을 대표해 온 전통 민요로 이미 ‘阿里郎’이라는 음역어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며, ‘에버랜드’는 중국에 널리 알려진 국내 놀이공원으로 ‘爱宝乐园’이 역시 하나의 고유명사로서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강강술래’와 ‘판소리’의 경우 음역의 양상이 다양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강강술래’의 경우 국내에서의 한자 표기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가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강강술래’가 ‘强羌水越來’로 표기되고 있으나 『한겨레음악대사전』에서는 ‘羌羌隨月來’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판소리’의 경우도 음역의 양상이 다양한데,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에는 ‘板索里’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 실태분석에서는 ‘盤索里’, ‘盤瑟俚’ 두 개의 다른 음역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강강술래’와 ‘판소리’ 두 용어의 음역 모두 기존의 사전 등이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 및 음역 표기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표준화된 음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용어를 음역할 때는 번역자 임의로 한글 원음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신력 있는 사전이나 관련 용례 사전을 참고하여 음역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용어의 원음뿐 아니라 문화적 함의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내지 음의검역의 기준 및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3.3.4.2. 로마자 표기

한글 문화용어를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번역 유형은 총 2개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하나는 음역을 하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고(예: 뿔판 跳吧, 韩语发音 Ttwilpan), 다른 하나는 하나의 번역어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었다(예: 네비아니 neobiani). 기본적으로 음역이나 기타 번역 유형에서 괄호 안에 로마자 표기를 넣어 문화용어의 원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번역어로 로마자 표기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단독의 번역어로 제시될 경우 원음은 전달될지 모르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원음의 ‘표기’일뿐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시 원음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로마자 표기는 괄호 안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가능한 중국어 음역을 통해 해결하며, 로마자 표기가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4. 번역 방안 제안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의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4.1. 한자역

한자역의 번역 대상은 대부분 한자어 문화용어로 한자역을 통해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한자역 하되, 한자역으로 인해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의역 등의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음역과 음의겸역을 지향한다.

유형문화재, 의례, 역사 기록물 등 관련 용어와 같이 주로 과거의 문물을 지칭하며 한자어 자체에 문화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함축되어 있고 한자역이 의미의 전달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최대한 한자역하여 문화적 고유성을 살리고 소통성을 확보한다.

예) 불국사 佛国寺, 음복례 饮福礼,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实录地理志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했을 때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와 일치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할 여지가 적고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소통과 수용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경우 역시 한자역 한다.

예) 인삼 人蔘, 탕 汤, 풍수 风水, 보살 菩萨

한자어 문화용어의 경우라도 의미의 왜곡이 초래되고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소통 가능성, 언어의 기능성,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왜곡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역 등을 통해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의 고유성이 원음과 의미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음역 또는 음의겸역을 지향한다.

예) 고사 告祀, 가곡 歌曲

3.4.2. 의역

의역으로 번역된 대상은 한자어와 순우리말 용어가 모두 포함되었지만 양적으로는 순우리말 용어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는바 필요할 경우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하며, 문화용어 분야 및 기능별로 의역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역 중 소통성이 강조되는 음식명은 현지에서의 수용성과 함께 문화의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번역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1) 순우리말 음식명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짧게 표현하되 맛, 조리방법, 주재료, 모양 순서로 의역한다.

예) 제육덮밥 辣炒猪肉盖饭

(2) 순우리말 명칭만으로 해당 음식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음식의 주재료와 조리 방법, 먹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의역한다.

예) 순대 血肠, 곰탕 精熬牛骨汤, 보쌈 菜包肉

(3) 한자어로 이뤄진 한식명은 한국 고유의 음식명을 살리기 위해 한자를 살려 간체자로 표기한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예) 수정과 水正果(生姜桂皮茶)

(4) 이미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식명은 관용적인 표기를 존중하여 이를 따른다.

예) 된장찌개 大酱汤, 불고기 烤牛肉, 물냉면 冷面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대응역한다.

예) 부채 扇子, 밥 米饭, 돌 周岁

언어의 경제성, 의미의 정확성, 전달의 효과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은 번역어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어절이 아닌 어휘 차원의 번역어 도출을 지향한다.

예) 김치 냉장고 盛放辛奇的冰箱 → 辛奇冰箱 또는 泡菜冰箱

문화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번역어 앞에 ‘한국(韩国)’, ‘한식(韩式)’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사한 대응어를 빌려 번역하거나, 한국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예) 씨름 韩式摔跤, 약식 韩式八宝饭

3.4.3. 혼역

혼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⁹⁾로 결합된 특징을 갖는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번역 방안을 모색하되,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문화용어 중 ‘~축제’의 경우 전부요소인 지역명과 해당 축제의 주제는 개별성을 드러내되, 후부요소인 ‘축제’의 번역어를 표준화한다. 지역명의 경우 한자어는 간체자로, 순우리말일 경우 음역 혹은 음의겸역한다. 축제의 주제어는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며 후부요소인 축제는 혼재되어 있는 ‘节’ 와 ‘庆典’ 중 ‘节’로 통일한다.

예) 울산고래축제 蔚山鲸鱼节, 경포해돋이축제 镜浦海上日出节

‘~놀이’의 경우, 후부요소지만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와 무형문화재 등에 포함된 연희와 공연 성격을 갖는 ‘~놀이’를 구분하여 번역한다.

3.4.4. 음역과 음의겸역

음역과 음의겸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결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방안으로 권장된다. 음역 및 음의겸역의 확대를 위해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자어와 순우리말 문화용어 중 기본적으로 한자역과 대응역을 통해 문화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는 용어를 제외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하는 문화용어는 원칙적으로 향후 마련될 음역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음역과 음의겸역을 지향한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는 도착어 문화권에서 유사한 대응어가 있더라도,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의미의 일치성, 전달의 효과성, 문화적 함의의 중첩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대한 음역 혹은 음의겸역한다.

예) 김치 辛奇, 대보름 大望日

문화용어를 음역할 경우 초기에는 음역어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음역어와 괄호

9) “전부(前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하며 “후부(後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출처:국립국어원 공공용어 번역 영문표기기준 지침(안)

안 설명을 병기할 수 있으나 괄호 안 설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음역어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용어의 원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중국어로 음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네비아니 neobiani (×)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문화용어를 추출하고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번역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유형 특징을 도출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592개이다.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의 용어에 대해 단일 기관이 번역한 비중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고 복수 기관이 번역한 것 중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0.7%, 기관 간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6.3%로 확인되었다.

둘째, 추출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한자역(47.1%), 의역(38.7%), 혼역(12.5%), 음역(1.7%)으로 구분되고, 한자역의 하위 유형에는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이, 의역의 하위 유형에는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포함된다.

셋째, 각 번역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을 제안하자면 먼저 한자역의 경우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한자역을 하되,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역 등 다른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음역과 음의견역을 지향한다.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하며 분야와 기능별로 문화용어의 의역 프로세스 표준화를 지향한다.

혼역의 대상은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구성을 갖는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번역 방안을 모색하고,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음역과 음의검역은 문화용어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의 결합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방안이다. 단, 음역 및 음의검역의 확대를 위해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자어와 순우리말 문화용어 중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하는 문화용어는 향후 마련될 음역 지침에 따라 음역과 음의검역을 제안한다. 문화용어를 음역할 때 초기에는 음역어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음역어와 괄호 안 설명을 병기할 수 있으나 괄호 안 설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음역어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문화용어의 원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중국어로 음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번역어 앞에 ‘한국(韩国)’, ‘한식(韩式)’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유사한 대응어를 빌려 번역하거나, 한국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중국어로의 문화용어 번역을 위해 음역 기준에 해당하는 ‘한중 음역 기준표’ 마련과 음의검역 프로세스 표준안 수립이 필요하며 문화용어의 분야별, 기능별로 의역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 표준화 방안에 따라 문화용어 표준 번역을 확정, 기타 기관에서 동일 용어의 번역 시 확정된 표준 번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문화용어 번역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House, J. (2006). Text and context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8): 338-358.
- Katan, D. (2009a). Culture. Baker, M. and Saldanha, G (eds.),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70-73. London/New York: Routledge.
- Katan, D. (2009b).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ited by Munday, J.,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74-92. London/New York: Routledge.
- Newmark, P. (1988).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New York: Prentice Hall.
- Nida, E. A. (1945).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 problems. *Word* 1: 194-208.
- Nida, E. A. (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problems. Edited by Hymes, Dell H., *I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90-100. New York: Harper & Row.
- Han, B. (2005). *Basic Korean cooking.* Seoul: Hyeonamsa.
- Hall, E. (2000a). *The silent language* (H. Choi, Trans.). Seoul: Hangilsa.
- Hall, E. (2000b). *Beyond culture* (H. Choi, Trans.). Seoul: Hangilsa.
- Han, S., Lee, M. and Kim, G. (1985).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H. (2004). *(The)Paradaigm for a new translation.* Seoul: Prunsasang.
- Kim, H. (2007). The study of the brand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24: 473-511.
- Kim, H. (2012). *Comparing patterns in the translation of food nam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food nam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4(1): 49-69
- Kim, S. (2010). *A Study on Cultural Differences in Internet Users through Information Design Model: Emphasis on Internet User's Behaviors.* PhD dissertation, Bukyong National University.
- Lee, J. (2006). *Cultural Difference and Its Effects on Design Methodologies for User Research : with the Emphasis on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Dutch Participants.* Masters dissertation, KAIST.
- Lim, K. (2009).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education.*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nowledge Press.
- Lim, Y. (2009). *Japanese dictionary of Korean culture.* Seoul: JNC.
- National Academy of Korean Language(2002). *Introduction to Korea cultural.* Seoul: Hakgojae.
- Song, B. (2012). *Encyclopedia of Korean music.* Seoul: Bogosa.
- (7) Zhang, A. (2011). *Study of cultural competence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http://www.cha.go.kr>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rch 2016; received in revised form on 15 May 2016; and accepted on 20 May 2016.

Author's email address

hyerim@ewha.ac.kr

About the author

Hyerim Kim is Professor and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research methodology and applied linguistics.

Ai-Li Chang is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ranslation ideology, community interpreting, interpreting training and cultural competence.

Liyang Jiang has finished the PhD coursework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evaluation.